

익산 핵심 현안사업 지원요청

정현을 시장, 민주이재명 대표에 제2혁신도시 유치 등 현안 해결 위해 지원 약속

정현을 익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제2혁신도시 유치 등 지역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정 시장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지역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최고위원회의에는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서영교 박찬대, 고민정 장경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주요 인사와 김관영 도지사, 한병도 도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이 출석했다.

정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추가 혁신도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제2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전북도, 지역 정치권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관영 도지사는 "제2혁신도시를 익산에 유치하겠다고 후보자질부터 공약했다"며 "전주가 전북 행정의 중심에 있다면, 교통 중심



지역 익산은 전북 전체 발전 중심의 최적지"라고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익산시 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겠다"며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방이 더 잘 사는 곳으로 만드는 데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효율적 업무 위한 조직개편 단행

10국소 49관과소 3전문위원 27읍·면·동 311계 조직 조정

군산시는 올해 효율적 업무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시에 따르면 기존 10국소 47관과소 3전문위원 27읍면동 308계에서 10국소 49관과소 3전문위원 27읍면동 311계로 조직을 조정했다.

신설된 과는 경제항만혁신국 사업진흥과와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다.

이는 민선8기 공약사업 및 국정과제 추진, 행정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신설됐다.

어업진흥과는 어업의 진흥 및 수산식품 발전전략 추진을 위해 어업과 수산을 분리해 수산식품정책과와 어업진흥과를 분리 신설했으며 코로나 19 등 감염병 발생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응을 위해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했다.

신설된 계는 기획예산과 교향사랑기부계, 수산식품정책과 수산식품산업계, 어업진흥과 어업정책계, 교통행정과 영상정보계,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계, 시립도서관관리과 금강도서관계, 의회사무국 대외협력계, 의회사

무국 정책지원계, 의회사무국 의회관리계다.

폐지 및 통합된 계는 6개 계로 산업혁신과 공공투자계는 투자유치계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계는 군산형일자리계로, 여성가족과 자원봉사계는 여성정책계로 업무를 이관했으며 기획예산과 규제심사계는 법무성과계, 새만금에너지과 새만금개발지원계는 새만금정책개발계, 항만해양과 물류지원계는 항만물류계로 통합됐다.

소속 및 명칭변경은 행정지원과 청사관리계가 회계과로,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계는 행정지원과로, 수산진흥과 양식산업계, 어업지원계, 어선어업계는 어업진흥과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계는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박물관관리과 생태시설관리계는 환경정책과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계, 감염병대응계는 감염병관리과로, 건강관리과 서부건강지원계는 보건행정과로 변경됐다.

'과' 명칭변경은 4과 16계로 소상공인지원과는 지역경제활력과로, 수산

진흥과는 수산식품정책과로,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정책과로,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변경됐다.

'계' 명칭변경은 법무의정계에서 법무성과계(규제심사계 통합)로, 기업협력계는 산단관리계로, 청년일자리계는 청년정책계로, 신재생에너지계는 신재생에너지계로, 새만금정책계는 새만금정책개발계(새만금개발지원계 통합)로, 항만정책계는 항만물류계(물류지원계 통합)로, 수산물류통계는 수산물류통과계로, 재생사업계는 도시활성화계로, 재생관리계는 재생전략계로, 자활사회서비스계는 사회서비스(자활업무 이관)로, 시설물안전관리계는 중대재해관리계로, 방문보건계는 방문건강계로, 모자보건계는 가족건강계로, 식품가공계는 식품산업육성계로, 의사계는 의사운영계로, 민원상담관은 시민봉사계로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2023년 상반기인사로 시민을 위한 업무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난방 경로당'으로 어르신 '시수'

익산시, 경로당 난방비 159만원 지원... 적극 개방·한파 대응

익산시는 연이은 최강한파에 난방 취약계층인 어르신들 보호를 위해 특별집금 및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현을 시장은 어르신들의 난방비 걱정 없이 한파를 견딜 수 있도록 익산시 전역의 408개 경로당을 한파 쉼터로 지정해 지역별 난방 안전자금을 사수하라고 지시했다.

한파대책 기간인 3월 15일까지 운영해 한시난방비 등 사업비를 개소당 1백50만15천원을 경로당에 지원해 겨울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미리 대비했다.

특히 기록적인 한파로 수도계량기 동파나 보일러 고장으로 주거가 불편한 주민들에게 일시적으로 한파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으며, 쉼터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했다.

또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의 돌봄 서비스 운영상황을 점검

했다.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 및 한파 대비 후원 물품 연계지원과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파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조사에 나섰다. 피해를 입은 3개 기관, 29세대를 수리 완료하여 정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했다.

이 밖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1,194세대에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응급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응급요원 및 소방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현을 시장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한파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사각지대를 잘 살펴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며 "최근 한파와 난방비 상승으로 힘든 취약계층이 추위에 떨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계량기 동파 선제 대응... 민원 '감소'

익산시가 올 겨울 계량기 동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민원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시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수도 계량기 동파 민원은 34건으로 지난 2020년 605건, 2021년 49건보다 감소했다.

시는 지속되는 최강한파 속에서 민원에 대비해 동파 계량기 긴급 교체 지원민을 운영하는 등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대응팀을 즉각 파견해 계량기를 교체하고 개인 상수도관로 해빙 방법 등을 안내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연말부터 수도 계량

기 동파 예방을 위해 저층 아파트와 구도심 상가, 읍면지역 단독주택 등 동파 취약지역을 사전점검하고 수용가 요청 시 계량기 내부 보온재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어 안내문 발송, 요금고지서에 동파 대비 안내문 배부, SNS 등을 통해 동파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계량기함 내부를 보온팩이나 헝겊으로 채워 보온 조치를 하고 장기간 외출 시 물을 약하게 틀어 흐르게 하면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며 "동파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경우 즉각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봄철 산불예방 사전준비 철저

군산시는 27일 '3년 연속 산불 없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산불 예방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읍·면·동과 상활실 간의 유기적인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불전문 진화대원 48명, 산불감시원 40명 등 총 94명을 산불 위험 지역과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산불방지 계도 활동과 사전 산불요인 제거, 산불감시 및 진화 등의 현장 업

무를 실시한다.

또한, 산불발생의 주원인인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산불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산림 인접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임준 군산시장장은 "산불예방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며 "산불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 및 소각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평생학습 '행복포인트제' 운영

군산시는 27일 평생학습과 책 읽는 교육문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평생학습 '행복포인트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생학습 '행복포인트제'는 평생학습관의 강좌를 수강 수료자에게 포인트 점수를 배정해 일정 포인트를 획득하면 희망도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오는 3월부터 평생학습 행복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해 올 한해 운영하며 데이터 기반 평생학습 환경을 마련해 체계적인 학습이력 관리 조성을 실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행복 포인트제도 운영으로 도서 교환을 통해 책 읽는 교육문화 도시로 거듭나는 행정을 준비하고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금 확대

군산시는 지난 27일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아동생활시설,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자립수당은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자립정착금은 종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22명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았으며 자립수당은 55명이 지원받고 있다.

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대학입학준비금지원, LH 주거지원연계, 취업 및 고용정보 등을 제공하고 1:1 맞춤형 재무설계 상담, 자격 취득 및 심리상담 연계 등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지급액이 확대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정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